

KCCI 브리프\_ESG\_제39호

# KCCI ESG NEWSLETTER

##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JUL. 2024

### 전문가 기고

관행과 특수성 강조만으로  
ESG 파도 못 넘는다

### ESG 주요 현안

EU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 국내외 주요 ESG 뉴스

### ESG 주요 통계

ESG 금융  
ESG 평가  
기타 통계

#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대한상공회의소

## 전문가 기고

# 관행과 특수성 강조만으론 ESG 파도 못 넘는다

김경락

한겨레신문 경제산업부장

“이윤 추구가 핵심 존재 이유인 사기업은 지켜야 할 또 다른 가치를 떠안거나 요구받아왔다.”



이윤 추구가 핵심 존재 이유인 사기업은 지켜야 할 또 다른 가치를 떠안거나 요구받아왔다. 20세기 부흥했던 소비자주권운동은 기업에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소비자만은 아니었다. 기업 내 생산과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노동자를 비롯해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는 물론 법·제도를 만들고 과세권이 있는 정부와 정치권도 기업 내의 사결정에 고려해야 할 핵심 이해관계자로 자리 잡았다.

어떤 이해관계자가 기업 내 의사결정에 좀더 큰 영향을 발휘했는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부침이 있었다. 권위주의 시대에선 정부와 정치권이, 소비자주권이 강조될 땐 소비자가, 원·하청 거래의 공정성 제도가 갖춰갈 땐 협력사가 주요 이해관계자로 등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사는 기업 안팎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 조정, 협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 초엽 국내에서도 자리를 잡기 시작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또는 ‘지속가능한 경영’이란 개념에 이런 이해관계 관리의 중요성이 투영됐고, 오늘날 ESG경영의 한 축(Social)으로도 반영돼 있다.

이해관계자를 잘 바라봐야 안정적인 이윤 추구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런 시각은 오늘날 좀 더 진화·발전하고 있다. 진화의 동력은 ‘자본시장’ 영향력의 확대다. 기업의 의사결정은 재무활동을 벗어나서 이뤄질 수 없으며, ‘자기 자본’만으로 운영되는 기업도 드물다. 한마디로 자본시장에 기대 기업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자본시장의 영향력이 확대된 건 행동주의 편드가 늘어나고 소수주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투자의 대가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는 건 과거의 자본(혹은 금융)과 차이는 없지만 이들은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른바 ESG의 또 다른 축인 기업 지배구조(Governance)다. 좀 더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라는 믿음 속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이들은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다. 지배구조란 계열사 간 출자 구조, 경영진에 대한 보상, 독립적인 이사회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요소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지배구조 개선 요구는 과거엔 시민단체나 전문가그룹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오늘날엔 ‘투자자그룹’이 그 자리를 꿰차면서 좀 더 직접적인 기업 압박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 체제는 흔히 재벌 그룹으로 불리는 집단형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런 까닭에 ‘그룹의 이해’, ‘계열사의 이해’, ‘개별 계열사 주주들의 이해’, ‘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이해’가 종종 엇갈린다. 종종 배임·공정거래법 위반과 같은 형사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지만 오늘날엔 그에 앞서 주주의 이익 충돌 양상으로 문제가 불거진다. 최근 한화·두산의 지배구조의 변화의 비판 목소리는 종래의 시민단체나 정부보다는 주주들 사이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이런 변화상은 좀 더 유의깊게 기업 의사결정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적 특수성이나 관행을 강조하기엔 주주들의 시계는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며, 이런 주주들이 집단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들의 존재를 의식하며 법·제도 수정에 나선다.

## ESG 주요 현안

# EU CSDD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 관보에 게재되어 7월 25일(현지시간) 발효될 예정이며, 이후 2년간의 회원국 내 국내법 전환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기업에 적용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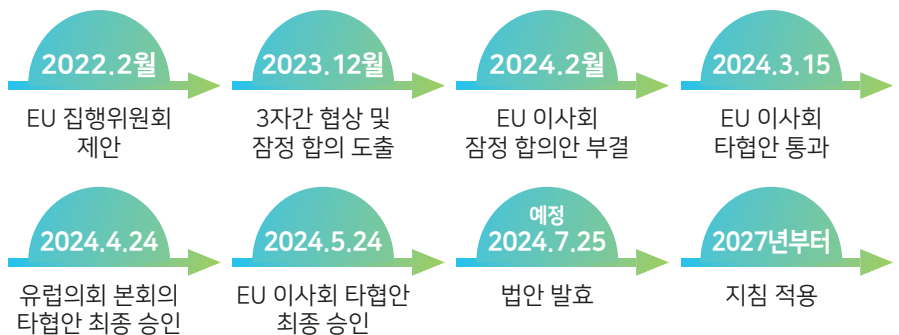
## 1.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제정 배경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가 지속 가능한 경제 전환 구현을 위해 2019년 발표한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일환으로 2020년 EU 집행위원회가 법안계획을 마련하며 추진되었다. 그러나 공급망 실사 관련 법은 이때 처음 도입된 것은 아니고 EU가 환경, 인권, 노동 등 유럽의 핵심 가치 구현을 위해 그린딜 이전부터 지속 추진해 온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사실 EU는 인권 침해 우려가 높은 광업, 임업 부문을 대상으로 분쟁 광물 규정(Conflict Minerals Regulation, 2021.1월), 목재규정(Timber Regulation, 2013.3월)을 마련해 실사 관련 법률들을 시행해 왔다.

이 외 프랑스, 독일 등 일부 EU 회원국은 자체적으로 국내 실사법을 제정해 적용했지만, 국가별 법안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어 여러 회원국에서 동시에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혼란을 초래했다. 이 밖에도,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발적 실사가 이행됐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고 역내 통일된 기준의 부재로 기업들이 자사에 유리한 부분만 실사를 시행하는 등 투명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EU는 유럽 차원의 공통된 기준을 만들어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 재량으로 두었던 연성법(soft law)을 경성법(hard law)으로 제정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역내·외 기업 모두에게 동일한 실사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 2. 법안 추진 경과

일반적으로 EU의 입법기관인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EU 이사회가 협상을 통해 법안에 대한 잠정 합의를 도출하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 각각 표결 후 합의안을 승인한 후 EU 관보에 법안이 게재되면서 입법이 완료된다. 그러나 이번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경우, 전 산업군에 영향을 미치며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 기업에도 적용되는 포괄적인 법안이다 보니 EU 입법기관 간 입장이 달라 합의 도출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2020년 EU 집행위원회가 실사 법안계획을 발표한 후 약 3년간의 협상을 거쳐 2023년 말에 가까스로 3자 간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나, 2024년 2월 EU 이사회가 합의안을 부결하면서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으나 EU 이사회 의장국인 벨기에의 적극적인 주도로 협상이 재개되었고, 3월에 최종 타협된 수정안이 마련되었다. 이 타협안은 4월과 5월 말에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 각각 최종 승인을 받았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 관보에 게재되어 7월 25일(현지시간) 발효될 예정이며, 이후 2년간의 회원국 내 국내법 전환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기업에 적용된다.



출처: '24 EU 공급망 실사 지침 Q&A - KOTRA

## ESG 주요 현안





# EU CSDD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 3. CSDDD 적용대상 기업 및 적용시점

CSDDD는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기업이 환경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입증하도록 의무화하여 기업이 자사의 활동이 환경과 인권 침해에 미치는 실제 및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고 예방, 종식 또는 완화하기 위한 요건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자회사와 직간접적으로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가치 사슬 내 다른 기업(설계, 제조, 운송 및 공급에 종사하는 기업의 업스트림 파트너와 유통, 운송 및 보관을 담당하는 다운스트림 파트너)의 활동에 대해서도 실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단 다운스트림에서 폐기 및 소비자 사용 단계는 제외되었고 서비스 및 금융산업은 업스트림 부문만 적용)

따라서 기업은 이를 위해 '예방 조치 계획을 개발 및 실행하고, 직접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해당 계획을 준수하겠다는 계약상의 보증을 받은 후 이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적용대상 기업은 EU 집행위원회 초안대비 대폭 완화되었다.

#### 적용대상 기업

역내		역외	
			
일반	로열티 수익	일반	로열티 수익
전 세계 순 매출액 > 4억 5천만 유로 및 직원 수 > 1천명	역내 프랜차이즈·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수익 > 전 세계 순 매출액 > 8,000만 유로	EU 역내 순 매출액 > 4억 5천만 유로 (직원 수 기준 없음) <i>*전전년도 회계연도 기준</i>	역내 프랜차이즈·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수익 > 2,250만 유로 및 EU 역내 순 매출액 > 8,000만 유로 <i>*전전년도 회계연도 기준</i>
또는 최종 모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출처: '24 EU 공급망 실사 지침 Q&A - KOTRA

#### 적용 시점

		2027년부터	2028년부터	2029년부터
역내 기업	직원 수	5천명 초과	3천명 초과	1천명 초과
	순 매출액(전 세계)	15억 유로 초과	9억 유로 초과	4.5억 유로 초과
역외 기업	순 매출액(EU 역내)	15억 유로 초과	9억 유로 초과	4.5억 유로 초과

출처: '24 EU 공급망 실사 지침 Q&A - KOTRA

# EU CSDDD (기업 지속가능 성 실사 지침)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 4. CSDDD 개념 및 주요내용

CSDDD의 주요 실사 항목은 인권과 환경이다. 이는 OECD의 사람, 환경 및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 기업 운영,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한다는 실사 목적을 기초로 OECD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6단계 실사 절차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정책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실사를 통합하고, 파리 협정에 따른 지구 온난화 1.5°C 제한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기후전환 계획을 채택하고 실행해야 하며 전환 계획에는 기업의 시간 제한적 기후 변화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조치, 계획 이행에 필요한 투자에 대한 설명(수치 포함)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후전환 계획은 ① 지속 가능한 경제 전환, ② 파리협정에 따른 지구온난화 1.5°C 감축, ③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이라는 3대 목표와 △2030년 및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설정한 기후변화 완화 목표 및 온실가스 절대 배출량 감축목표(Scope 1-3) 설정, △탈탄소화 목표 및 이행 조치 설명, △이행 관련 투자·자금 정보 제공, △행정, 관리, 감독 설명이라는 4개 행동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은 실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되며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해야 하며, 또한 불만 처리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기업의 행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개인 및 커뮤니티와 소통해야 한다.

회원국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및 벌금 부과를 담당하는 감독 기관을 지정하여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순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역외 기업은 기업을 대신하여 실사 준수와 관련하여 감독 당국과 소통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회원국을 기반으로 하는 공인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감독 기관 간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감독 당국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이다.

### 1) 실사의무 관련 주요 내용

공급망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식별 후 예방·완화·제거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고 연 단위로 실사 준수 내용 공시(실사 관련 증빙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역외기업은 관할당국과 접촉할 수 있는 EU 역내 대리인 지정 필요)

- ① 기업정책 전반에 공급망 실사 내재화
- ② 인권·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식별, 평가 및 우선순위 지정하고, 부정적 영향 해결(완화·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 ③ 고충 처리 메커니즘 구축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 ④ 최소 12개월마다 그리고 중대한 변화나 새로운 위험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 결과를 공시

## ESG 주요 현안

# EU CSDD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 2) 실사 절차



출처: '24 EU 공급망 실사 지침 Q&A - KOTRA

### 3) 관련 용어 설명

**[기업정책에 실사 통합]** 기업의 운영·활동 전반에 걸쳐 EU가 지침에서 규정하는 인권과 환경 요건이 준수되도록 설계

**[식별 및 평가]** 공급망 매핑 등을 통해 인권과 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평가

**[적절한 조치 시행]**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고, 위험도가 높은 순으로 예방·완화·제거·최소화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노조, 단체,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기밀유지가 보장

**[이해관계자 협의]** 기업은 협의체계 등을 구축해, 실사 이행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 가능

**[모니터링]** 최소 연 단위로 실사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변동 사항에 따라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 모니터링 시행

**[공시]** 자사 웹사이트에 기업의 실사 이행 내용을 연단위로 게시

**[기후 전환계획]** 기업은 파리협정 이행 및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연 단위로 현행화 필요 - 기업은 2050년까지의 5년 단위 조치 계획을 설정하고 가능한 경우 Scope1,2,3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탈탄소화 조치 방법과 투자계획 등 세부내용 기술

**[책임·제제]** 실사 의무 미준수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책임 부과 가능(단, 해당 손해가 협력사로부터만 발생할 시 기업 책임 면제)하며, 최대 전 세계 매출액 5%의 벌금이 부과 가능하며, 벌금을 결정할 때는 위반의 성격과 영향의 심각성, 부정적 영향 해결을 위한 기업 노력, 이전 위반 사례, 지침 위반으로 인해 기업이 받은 금전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만약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업명과 위반 내용을 담은 공개 성명서가 발표될 수 있으며, 벌금 외에도 공공 조달 입찰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

# EU CSDD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 5. CSRD와 CSDDD 차이점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인 EU CSRD(EU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와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인 EU CSDDD는 모두 유럽 기업 프레임워크 내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하는데 CSRD는 지속가능성 보고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CSDDD는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도입하여,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 및 평가하고 그러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완화 및 최소화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CSDDD는 구체적인 행동 로드맵을 제공하고, CSRD는 ESG 규범에 따른 투명한 공시 요건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타 법안과의 연계에 있어 다른 법안이 CSDDD와 중복될 경우 규제 수준이 더 자세히 엄격한 법안이 우위로 적용되나 공급망 실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까지는 CSRD 적용 대상 기업은 공급망 실사의 공시 및 기후전환 계획 수립 의무가 면제된다.

### <CSDDD와 연계된 EU 법률 관련 정보>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강제노동 결부 제품 금지규정, 택소노미, 분쟁광물규정, 배터리 규정, 산림전용방지 규정

## 6. 향후 일정 및 대응 방안

CSDDD 발효 후 2년 이내에 EU 각 회원국별로 국내법 제정이 될 예정이며 발효 후 2년 반 이내에 계약상 보증모델, 전반적 실사 절차를 비롯해 특히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평가, 우선순위 설정, 부정적 영향의 예방 및 해소, 적절한 조치, 시정, 이해관계자의 의미 있는 참여, 고충처리절차, 부문별 리스크 평가, 실사 이행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데이터, 기술지원 등과 발효 후 3년 이내에 기후 전환계획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 보복방지, 영업기밀보호, 기업간 정보 공유 방법, 이해관계자의 실사 전반에 걸친 참여 방법 등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EU에서 비즈니스 중인 기업들은 먼저 자사가 동 지침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대상 기업인 경우,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해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위험을 식별하고 해결해야 하며 가장 큰 위험이 있는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매출액 4.5억 유로 초과와 직접 적용 대상기업이 아니어도 인권·환경 의무 준수가 해당 기업에 대한 공급사로서의 주요 조건으로 부상돼 관련 기업들의 신속한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 점검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접적인 공급사나 협력사의 경우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EU 기업과의 거래 중 계약상 보증 등을 통해 일정 부분에서의 실사 이행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CSDDD와 더불어 이와 연계된 EU 배터리법이나 EU 삼림벌채법(EUDR법, EU Deforestation Regulation) 등을 점검하는 등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ESG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ESG 경영을 내재화한다면 EU CSDDD와 같은 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인용자료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 European Commission  
Fostering sustainable and responsible corporate behavior for a just transition towards a sustainable economy.
- The EU’s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 KPMG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 European Parliament
- ‘24 EU 공급망 실사 지침 Q&A – KOTRA
- KOTRA 해외시장 뉴스
- KOTRA 경제통상 리포트 EU24-09
- [ESG 세상]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제도와 동향 – 이윤진, 김아연, 조승우, 안치용
- [글로벌 규제] EU 공급망 실사지침(CSRDDD) – INSBee 지속가능경영(ESG) 트렌드

## E

### 환경



**디지털전환(DX) 기반 ESG 경영 - 생성형 AI의 성공적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  
ifsPOST | 2024.06.23.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4218](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4218)

**기후위기와 ESG 경영: 위협과 기회를 향한 기업의 대응**  
녹색경제신문 | 2024.06.24.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15616>

**RE100, 일본 정부에 “재생에너지 용량 2035년까지 3배 늘려라”**  
ESG경제 | 2024.06.25.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897>

**팝업스토어, ‘ESG 경영’의 위선 혹은 모순?**  
비즈니스포스트 | 2024.05.21.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2873](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2873)

**“2035년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 지원 필요”**  
시사오늘 | 2024.06.27.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064>

**사업장 안전부터 평판 리스크까지... ‘ESG 투자’ 진단표 나왔다**  
머니투데이 | 2024.07.0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70111363328131>

**(국내 탄소중립 현주소)③전자업계도 ‘탄소중립’ 피할 수 없다**  
뉴스토마토 | 2024.07.03.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34239&inflow=N>

**ESG 강화하는 공공기관... 폐자원 관리·지역상생 활동**  
국제신문 | 2024.07.04.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40704.99099001490>

**티끌 모아 탄소중립... ‘조각탄소감축’ 주목**  
한경ESG | 2024.07.0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212232i>

**“1년의 ESG활동 평가”...식품업계 대응 어떻게 하고 있나**  
뉴스1 | 2024.07.07. <https://www.news1.kr/industry/distribution/5470428>

**‘우리 강산 푸르게’ 40년... 세계에 심은 나무 여의도 면적 56배**  
세계일보 | 2024.07.10.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709515493?OutUrl=naver>

**지난해 전세계 기후소송 230여건...전년대비 40여건 감소**  
ESG경제 | 2024.06.27.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920>

**제약 바이오, 협력사 ESG 경영도 챙기자...공급망 ESG 규제 강화**  
머니투데이방송 | 2024.06.12.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061216401181478>

**‘청렴 기구’ 확대에 사회공헌까지...에너지 공기업 ESG 총력**  
국제신문 | 2024.06.18.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40618.99099005148>

**중소기업 본연의 기술력·노하우가 ESG경영 돌파구**  
중소기업뉴스 | 2024.06.24. <https://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55>

**“사회적 가치와 영리를 동시에”...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더팩트 | 2024.06.25. <https://news.tf.co.kr/read/economy/2109544.htm>

**농어촌 ESG 실천 제도 도입... “기업 ESG 활동 농어촌으로 확산”**  
파이낸셜투데이 | 2024.06.26.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339>

**사회공헌 강화에 안전 점검까지...산업부 공기업 ‘ESG’ 확산**  
국제신문 | 2024.06.26.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40625.99099007365>

**직원 행복위해 ESG 강화... 일할 맛 나는 패션업계**  
파이낸셜뉴스 | 2024.07.01. <https://www.fnnews.com/news/202407011803493653>

**대기업 58.4% “ESG 공시 적정 시기는 2028년 이후”**  
데일리안 | 2024.06.16.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72284/?sc=Naver>

**삼정KPMG “글로벌 기업 3곳 중 1곳만 ESG 공시·인증 준비 완료”**  
파이낸셜뉴스 | 2024.06.18. <https://www.fnnews.com/news/202406181643547459>

**“매출 클수록 ESG 공시·인증 준비도 높다”**  
IT비즈니스 | 2024.06.19.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463>

**대기업 넷 중 하나 “ESG공시 2029년 이후 시행...협력사 온실가스 조항 빼야”**  
아시아경제 | 2024.06.2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62016420418002>

**“韓 거버넌스 정책 단순하고 모순적...일관적 로드맵 추진해야”**  
연합인포맥스 | 2024.06.24.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4412>

**“기업 ESG 역량 판단에 활용”...환경부, 안내서 발간**  
뉴스시스 | 2024.06.2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22\\_0002782772](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22_0002782772)

**정보보호·기업경영공시 연계 강화 필요하다**  
세이프타임즈 | 2024.06.24.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71>

**ESG 리스크로 M&A 중단 ‘72%’ 달해**  
한국경제 | 2024.07.0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263256i>

**“ESG 평가지표, 특정 산업·기업에 편향...측정 방법 바꿔야”**  
한스경제 | 2024.07.11.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2499>

## S

### 사회



**중소기업 본연의 기술력·노하우가 ESG경영 돌파구**  
중소기업뉴스 | 2024.06.24. <https://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55>

**“사회적 가치와 영리를 동시에”...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더팩트 | 2024.06.25. <https://news.tf.co.kr/read/economy/2109544.htm>

**농어촌 ESG 실천 제도 도입... “기업 ESG 활동 농어촌으로 확산”**  
파이낸셜투데이 | 2024.06.26.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339>

**사회공헌 강화에 안전 점검까지...산업부 공기업 ‘ESG’ 확산**  
국제신문 | 2024.06.26.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40625.99099007365>

**직원 행복위해 ESG 강화... 일할 맛 나는 패션업계**  
파이낸셜뉴스 | 2024.07.01. <https://www.fnnews.com/news/202407011803493653>

## G

### 지배구조



**대기업 58.4% “ESG 공시 적정 시기는 2028년 이후”**  
데일리안 | 2024.06.16.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72284/?sc=Naver>

**삼정KPMG “글로벌 기업 3곳 중 1곳만 ESG 공시·인증 준비 완료”**  
파이낸셜뉴스 | 2024.06.18. <https://www.fnnews.com/news/202406181643547459>

**“매출 클수록 ESG 공시·인증 준비도 높다”**  
IT비즈니스 | 2024.06.19.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463>

**대기업 넷 중 하나 “ESG공시 2029년 이후 시행...협력사 온실가스 조항 빼야”**  
아시아경제 | 2024.06.2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62016420418002>

**“韓 거버넌스 정책 단순하고 모순적...일관적 로드맵 추진해야”**  
연합인포맥스 | 2024.06.24.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4412>

**“기업 ESG 역량 판단에 활용”...환경부, 안내서 발간**  
뉴스시스 | 2024.06.2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22\\_0002782772](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22_0002782772)

**정보보호·기업경영공시 연계 강화 필요하다**  
세이프타임즈 | 2024.06.24.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71>

**ESG 리스크로 M&A 중단 ‘72%’ 달해**  
한국경제 | 2024.07.0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263256i>

**“ESG 평가지표, 특정 산업·기업에 편향...측정 방법 바꿔야”**  
한스경제 | 2024.07.11.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2499>



## 1. ESG 금융

### (1)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종목 수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개)

구분	'23.11	12월	'24.1	2월	3월	4월	5월	6월
녹색채권	276	278	279	280	278	279	289	290
사회적채권	1,440	1,463	1,474	1,502	1,531	1,526	1,554	1,577
지속가능채권	280	290	285	275	268	254	238	237

(단위: 천억 원)

### (2)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잔액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구분	'23.11	12월	'24.1	2월	3월	4월	5월	6월
녹색채권	254	256	255	266	262	259	264	264
사회적채권	1,971	1,994	1,999	2,023	2,054	2,044	2,079	2,102
지속가능채권	201	203	199	186	184	177	171	171

자료: KRX 사회책임투자채권-통계-상장현황

## 2. ESG 평가

###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24.6.28)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8	14	20	38	78	131	161	135

### (2)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24.6.28)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배구조보고서	76	101	213	224	231	355	380	530

자료: KRX ESG 포털

## 3. 기타 통계

###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누적 수('24.6)

\* CF100 참여 기업 수: 157개 ('24.6)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내	-	-	-	6	14	27	36	36
글로벌	101	141	204	269	335	393	426	433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https://24-7cfe.com/>

# 2024년 ESG 뉴스레터 발간 주제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및 문의처

\*지속가능경영원

1월	COP28 주요 결과와 시사점
2월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주요내용과 활용
3월	ESG Digitalization과 데이터 통합관리
4월	미 SEC 기후 공시 규칙안과 영향 분석
5월	국내기업의 ESG위원회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6월	글로벌 인적 자본 공시 현황과 대응방안
7월	<b>EU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b>
8월	S분야 현안, 다양성.형평성.포용성 (DEI)
9월	KSSB 국내 ESG 공시제도 최종안
10월	EU 순환경제 법안 동향과 대응전략
11월	해외탄소배출량 측정 현황과 과제
12월	글로벌 기업의 ESG 연결 공시 우수사례

권우혁 연구원 | E. whk@korcham.net

김예원 연구원 | E. kyw1208@korcham.net